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오월은 가정의 달인데

오월! 시작된 지 엇그제 같다. 그런데 벌써 반을 지나고 있다. 초순에는 비가 자주 와서 오월의 본맛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월의 태양이 밋밋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다.

은은한 향기를 피워내던 아카시아 꽃은 이미 많이 졌지만 잠미는 아직도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고 있다.

지구상에서 개량종이 가장 많은 작미가. 이런 계절에 부응하여 오월에는 가족적인 행사도 많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여기에 스승의 날도 더해진다. 기타 각종 행사들도 오월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오월을 환희의 계절이라고도 하는 것 같다.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수반하여 지출도 많은 시기다. 하지만 오월은 역시 찬란한 그리고 행복한 계절이다.

이런 오월을 진정으로 잘 보내기 위해서는 가정이 튼튼해야 한다. 가정이 무너지면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국가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이라는 세포집단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가족 간에 대화가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담론 중의 하나가 바로 가족 간의 대화를 늘리자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은 물론 두려움까지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화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대화를 많이 나누면 사랑이 꽃피는 화목함이 가족 간에 형성될까. 그도 아닌 것 같다.

언젠가 미국에서 이런 통계가

나왔었다. 미국의 부부들은 하루 대화시간이 17초라고. 1초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그만큼 이혼율이 높아난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진정한 대화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들 일수록 대화를 자기위주로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연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의 창조물은 모두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다. 하물며 창조물 중의 으뜸이라는 인간은 오죽하겠는가.

그런데 상대방의 개성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의도대로만 따라오라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다름이 생기는 것이다.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다. '가장 선한 것도 악한 것도 혀'라고. 그렇다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사랑이 솟아올라 수 있는 대화를 나누도록 하자.

특히 오늘날의 가정은 순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가족 간의 연대의식이 얽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가족구성원을 부담으로 느껴지게까지 하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가족연대의식 약화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유기, 폭행, 방치는 물론 살해까지도 하게 된다.

이쯤 되면 가까운 친구나 이웃보다도 못하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원인이야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른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된다.

특히 가정교육의 부족이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다.

가정이라는 도장은 사후까지도 연결된다.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결코 지나치지 할 수 없다. 가정교육은 태동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 태어난 후 5,6세까지의 교육은 특히 중요하고 있다.

여러 연구물들에서 증명되고 있다.

우리 속담에도 "세살 적 버릇이 여든 간다. 칠성부름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어린 시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때문에 국력의 상당부분을 어린이 교육에 쏟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모두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의 달인 오월에 많은 생각을 해보자.

社說

스토킹 처벌 강화해야 한다

스토킹을 하다가 적발되면 길게는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스톱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많이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최근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스톱킹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법안은 스톱킹 범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에는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글·말·음

향·그림·영상·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나 부근에 두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법안은 스톱킹 범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내릴 때 200시간 이내에서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감을 명령할 수 있다. 법안은 원활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이라도 법원이 '감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이 차질없이 진행돼 스톱킹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容止若思

容止若思

▷ 뜻: 행동(行動)을 덤비지 말고 형용(形容)과 행동거지(行動舉止)를 조용히 생각하는 침착(沈着)한 태도(態度)를 가져야 함.

기고

김정현 전남서부보훈지청



5.18민주화운동, 오월의 승리

봄과 여름이 엇갈리는 요즘처럼 우리에게 가슴 한편으로는 슬픔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움이 교차하는 기념일이 하나 있으니 바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수많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슬픈 것이 전차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큰 희생을 그른 사건들 중의 하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후자이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이 38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는 한 순간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의 대가이다.

그들은 반민주주의의 세력인 신

군부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전 남도청에 끌려가 남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고귀한 희생과 대담한 용기를 보여 주었다. 이들은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닌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 삼촌, 학생과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그 희생을 더욱 불꽃하게 만든다. 또한, 지금의 발전된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다는 사

실에 감사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모두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5.18민주화운동의 키워드인 민주주의와 정의의 기억하고, 계승하여 더 나아가 한 개인의 존엄성이 보장받는 한층 성숙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또한, 최근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혀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1980년 그 당시를 담은 기록물이 최초로 공개 되는 등의 시대적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다시 한번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따뜻한 위로를 표하며, 5.18민주화운동 및 그 기념식에 관심을 갖고 희생자분들과 그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 본다.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흥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